

미국 마감 상황

2008.12.08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5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우려했던 것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지며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고용 시장 침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금융부문의 실적전망 상황 조정 소식에 반등.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259.18p(3.09%) 오른 8,635.42에 장을 마감.

S&P500 지수는 30.85p(3.65%) 상승한 876.07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3.75p(4.41%) 상승한 1,509.31을 기록.

이날 증시는 미국 비농업부문의 고용창출이 53만3,000명 감소하며 1974년 12월이래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

11월 실업률은 전월의 6.5%에서 0.2%p 증가한 6.7%를 나타내며 1993년이래 최고치를 기록.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6.99%, 주택차압비율은 2.87%를 나타내며 29년래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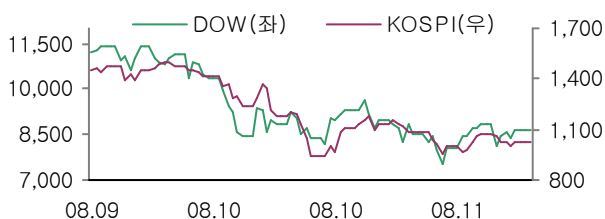
한때 지수는 고용지표 악화의 영향으로 250p 넘게 떨어졌으나 고용시장 침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긍정론과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가매수 심리를 촉발하며 상승.

또한 하트포드 파이낸셜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 발표한 영향으로 장후반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전환. JP 모건 7.3%,뱅크오브 아메리카 6.3%, 씨티 4.1% 상승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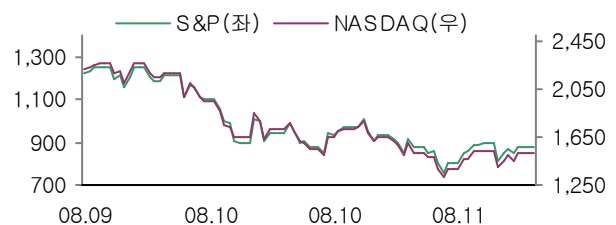
하트포드의 주가는 이날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4.90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 102.3% 폭등하며 14.59달러로 마감.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635.42	3.09	-2.19	7.32	-5.51	-22.82	-36.60
S&P(좌)	876.07	3.65	-2.25	9.50	-8.05	-29.17	-41.88
NASDAQ(우)	1,509.31	4.41	-1.71	9.03	-10.25	-33.19	-44.29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